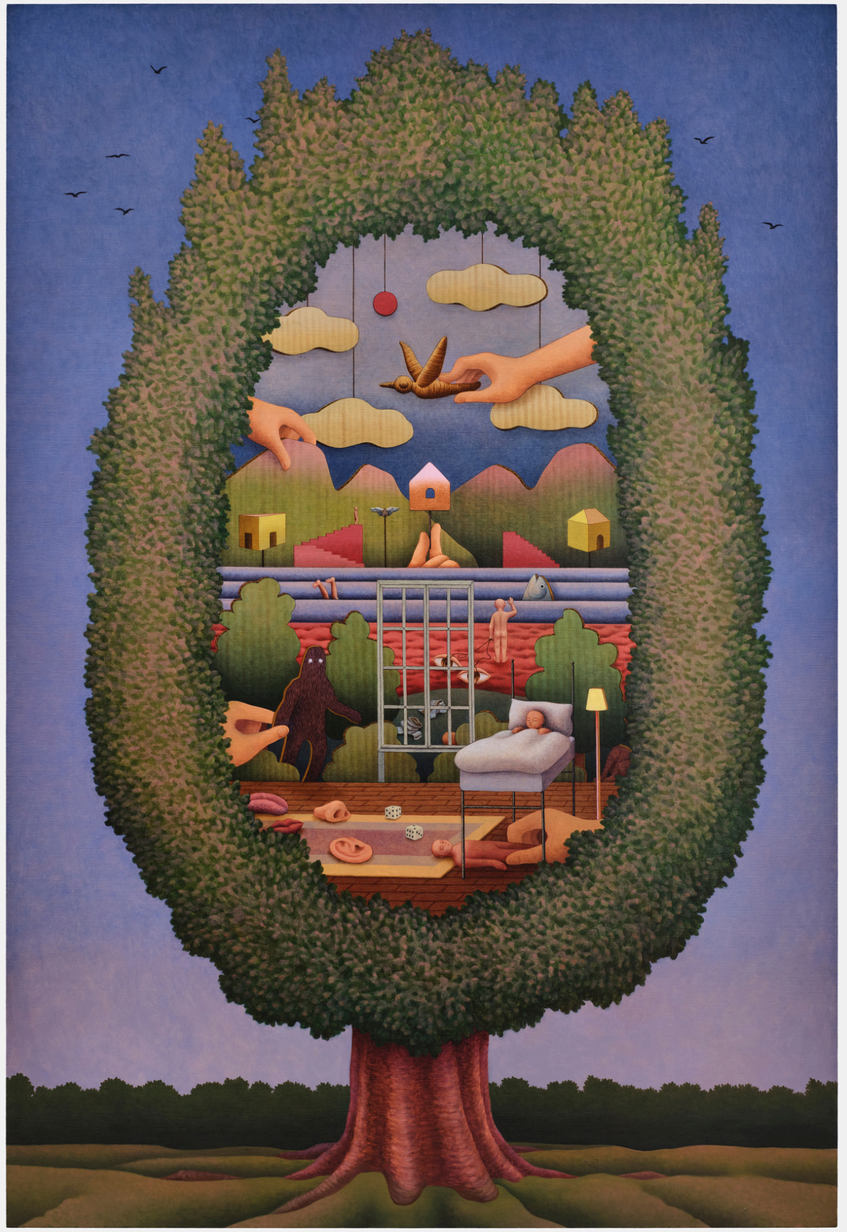

DISCOVER INSPIRING ARTISTRY
GreenRoom
by YEON YEOIN

Yeon Yeoin 연여인
I keep rolling ones and twos..,
2026
Oil on Linen
165x112cm



DISCOVER INSPIRING ARTISTRY

DISCOVER INSPIRING ARTISTRY



Yeon Yeoin 연여인
Green room
2026
Oil on Linen
150x130cm

DISCOVER INSPIRING ARTISTRY



Yeon Yeoin 연여인
Passage
2026
oil on linen
116.8 x 91cm

DISCOVER INSPIRING ARTISTRY

DISCOVER INSPIRING ARTISTRY



Yeon Yeoin 연여인
Forager I (채집자 I)
2026
Oil on linen
90.9 x 72.7cm

DISCOVER INSPIRING ARTISTRY



Yeon Yeoin 연여인
Forager II (채집자 II)
2026
Oil on linen
90.9 x 72.7cm

DISCOVER INSPIRING ARTISTRY



Yeon Yeoin 연여인
Let’s go
2026
oil on linen
65 x 35cm

DISCOVER INSPIRING ARTISTRY

EXHIBITION PREFACE

무대에 오르기 전,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은 듯 보이는 시간이 있다. 공연을 앞둔 이들이 잠시 머무는 대기실을 뜻하는 '그린룸(Green Room)'은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는 무대와 달리, 각자가 호흡을 가다듬고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며 다가올 순간을 준비하는 장소다. 이 전시는 바로 이 무대 뒤의 시간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대기실'은 단순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다. 도약을 앞둔 존재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머무르며, 변화에 필요한 힘을 축적하는 심리적 공간이다.

연여인은 그동안 집과 방, 숲과 같은 장소를 기억과 경험이 축적되어 이룬 내면의 풍경으로 다루어 왔다. 유년의 기억에서 길어 올린 이미지와 익숙한 사물, 인물과 동물은 그의 화면에서 현실의 질서를 벗어나 낯선 관계를 맺는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가 하나의 장면 안에 겹쳐지고, 내부와 외부, 현실과 상상의 경계는 느슨해진다. 작가에게 공간은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 이라기보다 인물의 심리가 바깥으로 확장된 또 하나의 구조에 가깝다.

이번 전시 속 인물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한다. 종이를 접고 또 접고, 나뭇가지를 하나씩 모으며, 물고기를 어딘가로 옮긴다. 누군가는 숲속을 헤매고, 누군가는 출구 앞에 멈춰 서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웅크리거나 잠든 채 자신의 시간을 보낸다. 이들의 행동은 명확한 목적이나 완결된 서사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적이고 사소하며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도약 이전의 행동'이다.
도약은 뛰어오르는 단 한 번의 순간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전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몸짓과 실패, 망설임과 준비의 시간이 존재한다. 당장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듯 보이는 움직임들이 쌓이면서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만들어진다. 연여인이 바라보는 것은 변화가 완성된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에 등장 하는 '접힘과 펼쳐짐'은 중요한 조형적 언어가 된다. 종이를 접으면 보이던 표면은 안쪽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나 한 번 생긴 접힌 자국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종이를 다시 펼친 뒤에도 그 흔적은 남아 다음 형태를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
기억과 경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나온 것은 사라지는 대신 접히고 겹쳐져 현재의 감각 안에 남는다. 변화한다는 것은 이전의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새겨진 흔적과 함께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작업 속 캐릭터들은 결핍된 존재 라기보다 아직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을 간직한 상태에 가깝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는가'보다 '무엇이 되어 가고 있는가'이다.

연여인의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양가적 감각 역시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숲과 나무, 둥지와 방은 인물을 보호하는 은신처인 동시에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경계가 된다. 편안해 보이는 실내에는 분절된 신체가 놓이고, 온몸이 상처로 가득한 아이는 평온해 보인다. 출구를 가리키는 표지와 닫힌 문, 숲 사이의 틈, 날아가는 새와 화면 밖에서 뻗어 들어오는 손은 안식과 불안, 머무름과 이동이라는 상반된 상태를 한 화면 안에 공존시킨다.
이러한 양가성은 그 자체로 종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도약을 앞둔 존재가 통과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태를 드러낸다.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과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감각,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과 아직 알 수 없는 바깥을 향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변화의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린룸(Green Room)'이라는 제목은 더욱 분명한 의미를 얻는다. 무대에 오르기 전 배우가 같은 동작과 대사를 되풀이하고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듯, 연여인의 인물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다음 장면을 준비한다. 그 준비는 반드시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실패하고 되돌아가며, 같은 행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겉보기에 무의미한 반복조차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의 일부다. 기다린다는 것은 멈추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용산문화재단과 디아 컨템포러리의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연여인이 구축해 온 회화 세계에서 '도약 이전의 시간'이 어떻게 이어지고 변주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관람객은 화면에 반복되는 몸짓과 접히고 겹쳐지는 형상, 인물들을 둘러싼 방과 숲을 따라가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변화하고 있는 존재들의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

삶에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시간이 있다. 이전의 자리에서는 이미 조금 멀어졌지만 다음 자리에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시간,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다. 그러나 연여인의 화면에서 이러한 시간은 공백도, 단순한 유예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모으고, 지나온 것을 새롭게 배열하며, 다음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다.

문이 언제 열릴지, 그 너머에 어떤 장면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작가 역시 그 이후를 섣불리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도약하기 직전의 존재들이 머무는 하나의 방을 열어 둔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종이를 접고, 누군가는 나뭇가지를 모으며, 누군가는 축축하고 비린 생명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쩌면 바로 그 순간, 수많은 반복과 망설임이 축적되는 시간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DISCOVER INSPIRING ARTISTRY



Yeon Yeoin 연여인
Origami (The Meeting 2)
2026
Oil on linen
130 x 180 cm

Private Collection

DISCOVER INSPIRING ARTISTRY

Yeon Yeoin 연여인
Nest
2026
Oil on linen
130 x 130 cm

Private Collection



DISCOVER INSPIRING ARTISTRY



Yeon Yeoin 연여인
“Oh, you’ve wandered far, my boy.”
2025
Oil on canvas
105 X 105 cm

Private Collection


DISCOVER INSPIRING ARTISTRY

DISCOVER INSPIRING ARTISTRY



Yeon Yeoin 연여인
Could it be —
Where I should be?
2025
Oil on canvas
105 X 105 cm

Private Collection

DISCOVER INSPIRING ARTISTRY



Yeon Yeoin
Wake up little one,
See what we’ve become
2025
Oil on canvas
116.8 X 80.3 cm

Private Collection



Yeon Yeoin 연여인
Don’t be grime,
Take your time
2025
Oil on canvas
97 X 97 cm

Private Collection

DISCOVER INSPIRING ARTISTRY

연여인 Yeon Yeoin (b.1995)

CV

서강대학교 심리학 & Creative visual arts 학사 졸업

개인전
2025
The House That My Mother Built, 디아 컨템포러리, 서울
2023
연여인 잉크 컬렉션 ‘001030', DOOR, 서울
2019
Engram: 기억흔적, 서울시립미술관 벙커, 서울

단체전
2026 보그 인투 아트(Vogue into Art), 뮤지엄한미 삼청, 서울
2026 DYNAMIS, 디아컨템포러리, 서울
2025 작은 거인들, 구하우스 미술관, 경기
2024
'공간의 공명: Resonance of Space' 서울한옥위크 전시, 서울
‘HAUS NOWHERE’ 젠틀몬스터, 선전, 중국
2023
사물쇼 part.1, 사무람, 서울 The Void – Odyssey, KIR SEOUL, 서울
2022
3650 storage – interview, 서울미술관, 서울
연여인 X 소울렛 '생일잔치', 기지재단, 서울
CAVALAB, Masion et Objet, 파리
The Void' art show, 연희예술극장, 서울
2021
거울 속의 거울, 서울 미술관, 서울 CAVARET, 카바랩, 서울

상영
2019
굿즈모아마트, 대림 구슬모아당구장, 서울
심장이 두개골로 향하는 지도, 행화탕, 서울
2019
‘Internationales Digitalkunst Festival' - 오디오비주얼 부문, 슈투트가르트. 독일
서울국제프라이드 영화제 - 한국 애니메이션 단편, CGV 명동, 서울

프로젝트
2023
'Flying Brain’ 연여인 팝업, POP 한남, 서울
연여인 X CASETiFY - 컬렉션 런치
연여인 X dropkitchenTM x HEIGHTS
2021
클립드롭스 1day 1drop - NFT 드롭, 대구미술관

Collaboration & Commercial works
Disney Plus, Gentle Monster, A24, CASETiFY, Wonderwall, Samsung, Kappa China, Elizabeth Arden Korea, KBS Radio, Hyundai Motors, SM Entertainment, FEELGHOOD MUSIC, CJ Entertainment, Quan Entertainment, Moss Music, Highjinkx, Magic Strawberry Sound, Beautiful Noise, Balming Tiger, Cacophony, LEE, Rolling Stone Korea, VICE Media



DISCOVER INSPIRING ARTISTRY

연여인 Yeon Yeoin (b.1995)

BIOGRAPHY



연여인은 펜과 잉크, 유화 등 전통적인 회화 매체부터 조각과 영상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현 방식을 넘나들며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이다. 스스로 작업을 '현실적 환상(Realistic Fantasy)'이라 정의하는 그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 세상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독창적인 시각 언어로 풀어낸다. 익숙한 사물과 공간, 자연과 인물은 현실의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낯선 관계와 상황 속에 놓이며, 현실과 환상,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오가는 다층적인 서사를 형성한다.

작가의 작업에서 기억은 과거를 재현하는 수단에 머무르지 않는다. 유년의 경험과 일상의 단편들은 상상과 결합해 새로운 풍경으로 재구성되며, 그 안에서 인간 존재의 불안과 욕망, 변화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한다. 특히 집과 방, 숲과 같은 공간은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축적된 내면의 장소로 등장하며, 반복되는 행위와 비현실적인 장면을 통해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2026년 용산문화재단과 디아 컨템포러리의 협력으로 개최되는 개인전 'Green Room by Yeon Yeoin'에서는 이러한 탐구를 '도약 이전의 시간'으로 확장한다. 무대에 오르기 전 잠시 머물며 다가올 순간을 준비하는 대기실인 '그린룸'을 출발점으로, 작가는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듯 보이는 시간 속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힘을 축적하는 존재들에 주목한다. 종이를 접고, 나뭇가지를 모으고, 물고기를 옮기는 등 반복적이고 때로는 부조리해 보이는 행위들은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이자,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는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기존 작품과 신작을 함께 선보이며 작가가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기억과 심리, 존재의 변화에 대한 서사를 한층 확장한다.

1995년 서울에서 태어난 연여인은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과 Creative Visual Arts를 복수전공하였다. 2019년 서울시립미술관 SeMA 벙커에서 첫 개인전 <Engram; 기억흔적>을 개최하였으며, 2023년 DOOR Seoul에서 개인전 <001030>, 2025년 디아 컨템포러리에서 개인전 <The House That My Mother Built>를 선보였다. 2026년에는 용산문화재단에서 <Green Room by Yeon Yeoin>을 개최하며 작업 세계를 이어가고 있다. 구하우스미술관의 <작은 거인들>을 비롯해 뮤지엄한미 삼청에서 개최된 <보그 인투 아트(Vogue into Art)>에 참여하였다. 특히 <보그 인투 아트>에서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전시하며, 참여 작가 중 최연소 작가로 이름을 올리는 등 국내외 미술계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회화와 드로잉을 기반으로 발전시켜 온 연여인 특유의 시각 언어는 영화, 음악, 패션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의 협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레드벨벳의 'Cosmic' 뮤직비디오 삽화 및 애니메이션, 젠틀몬스터 HAUS NOWHERE Shenzhen의 미디어 작업 <recess>, 박찬욱 감독의 드라마 <동조자> 한국 포스터, 윤종빈 감독의 드라마 <나인 퍼즐>포스터 등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 포스터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이처럼 매체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조형 언어와 서사적 세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D I S C O V E R I N S P I R I N G A R T I S T R Y

DIA Contemporary Seoul
DIA Project Seoul
Huue Pte Ltd Singapore

www.diacontemporary.com
www.diaartproject.com
@dia.contemporary
@dia.art.project